

SFOC Coal Issue Brief

04 / 국내 주요 금융기관 100개 기후변화 정책 평가

2022년 1월 4일

목차	1 배경 및 요약	01	4 글로벌 금융시장 기후변화 대응 동향	05
	2 대상 및 방법	02	5 부문별 데이터 및 분석	06
	3 분석 결과	03		

탈석탄 선언 이어진 2021년,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부재 한국 주요 금융기관 100개의 2021년 기후변화 정책 성적표

1 배경 및 요약

2021년 한 해, ‘탈석탄 선언’ 바람이 불었다.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5월 서울에서 열린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서는 민간 금융권에서 탈석탄 선언이 연이어 나왔다.

탈석탄 바람이 분 자리,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을까. 한국 금융권에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지, 특히 탈석탄 선언에 실효성 있는 행동이 뒤따랐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한국 주요 100개 금융기관의 2021년 기후변화 정책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은 100개 중 70개에 그쳤고, 탈석탄 선언을 한 금융기관 가운데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기관은 소수에 불과했다. 특히 탈석탄 선언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미 사양화된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국한돼 있는 문제가 확인됐다. 투자 실무에 있어 선언 전후로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 사이 글로벌 금융시장은 탈석탄을 지나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탈화석연료’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의 재무적, 환경적 위험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가 금융권 안팎에 형성돼, 온실가스 배출원 가운데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투자 감축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과 요구에 비춰보면, 한국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정책은 뒤처져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대상 및 방법

분석 대상은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정책금융기관·연기금·공제회 등 6개 부문의 총 100개 금융기관이다. 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부문별 주요 기관을 선정, 해당 기관의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ESG보고서, 언론기사 등을 통합해 해당 기관의 공식적인 기후변화 정책을 취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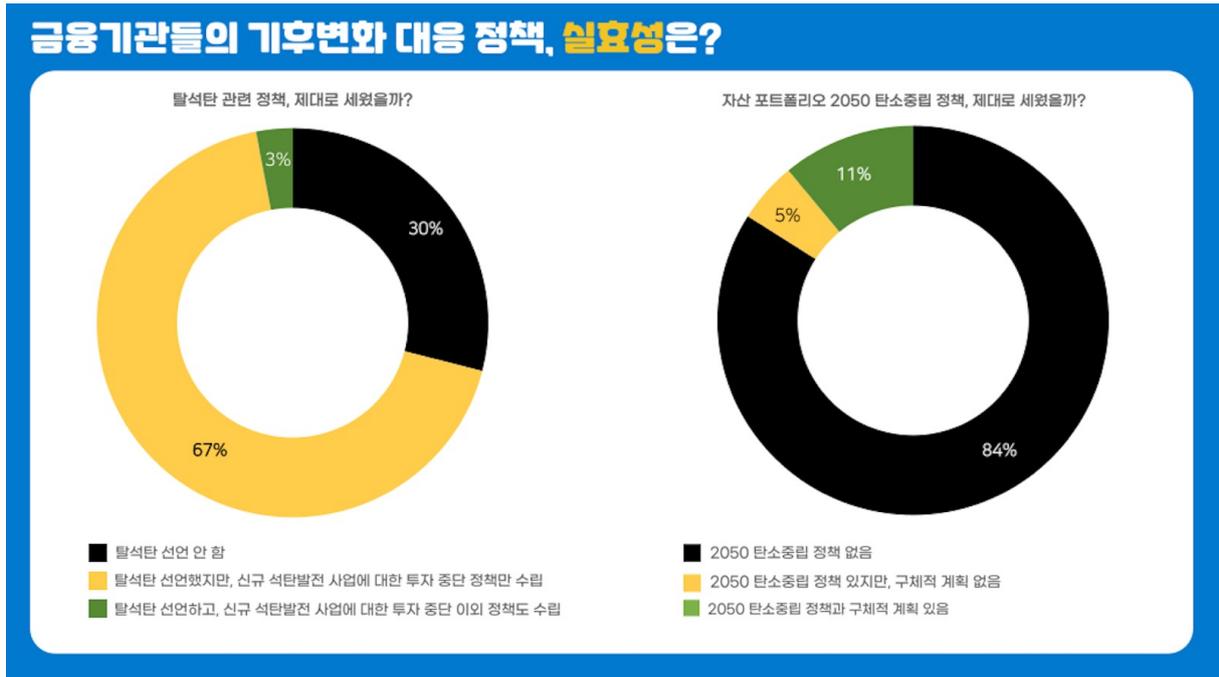
기후변화 정책 평가 항목은 총 8개다. 탈석탄 투자 기준과 관련한 세부 항목을 6개 선정했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 항목을 2개 추가했다. 석탄 사업 관련 항목 중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보험 중단'과 '운영보험 중단' 항목은 투자뿐 아니라 보험 인수를 통해 금융을 제공하는 손해보험사에 한해 적용했다. 탈석탄 투자 기준은 독일 비영리단체인 우르게발트(Urgewald)가 개발해 글로벌 금융기관의 탈석탄 정책의 기초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글로벌 탈석탄 리스트 (Global Coal Exit List)'의 기준을 반영했다. 이 기준은 (1) 석탄 산업의 범위를 설정하고 (2) 매출 또는 발전량 기준으로 석탄 기업을 정의하며 (3) 투자 배제 범위를 설정하는 등 3가지를 필수 기준을 제시한다. 본 분석에서는 이 기준을 참고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평가 항목을 설정했다.

- **탈석탄 선언:** 해당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경우 O, 하지 않은 경우 X
-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및 채권 인수 중단 여부. 석탄발전소 건설 투자 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X,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단은 'PF', 채권 인수 중단은 '채권', 수출신용보증 등은 '보증'으로 표시
- **석탄 관련 산업 투자 중단:** 석탄발전 외 광산, 터미널 등 석탄 관련 산업 전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 **석탄기업 배제 기준:** 매출 또는 발전량을 기준으로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을 세워 이들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경우 해당 기준을 표시, 기준을 세우지 않은 경우 X
-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205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중립 목표를 밝힌 경우 O, 그렇지 않은 경우 X
-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온실가스 중간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경우 2030년 감축 목표치를 표시
- **건설보험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보험 중단을 선언한 경우 O, 아닌 경우 X (손해보험사에 한해 평가)
- **운영보험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운영보험 중단을 선언한 경우 O, 아닌 경우 X (손해보험사에 한해 평가)

3 분석 결과

총평

분석 대상 금융기관의 2/3가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대부분 '신규 석탄발전사업 투자 중단'에 그쳐,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탈석탄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탄소중립 목표 역시 대부분 선언적 목표로 수립된 상태다. 또 구체적으로 자산 포트폴리오의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세운 기관은 소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탈석탄 선언 현황

분석 대상 100개 금융기관 중 70개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전히 주요 금융기관의 1/3은 기후변화 위험 관리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석탄 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재무적 위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산업으로, 기후변화 위험 관리의 시작점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금융기관들의 기후변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더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석탄 선언을 한 70개 기관들의 탈석탄 정책도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탈석탄 기준

조사 대상 기관 중 (1) 석탄 사업 범위 (2) 석탄 기업 기준 (3) 투자 배제 범위의 탈석탄 정책 요소를 포함하는 정책을 수립한 기관은 SC제일은행,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3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기관의 탈석탄 정책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탈석탄 선언을 한 기관의 90%에 달하는 64개 기관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 정책만을 수립한 점이다. 신규 추진되는 석탄발전 사업은 현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대부분 없어진 상태다. 때문에 ‘신규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만으로는 탈석탄 선언 전후의 투자 실무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탈석탄 투자 기준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사업을 포함해 석탄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value chain) 전체를 ‘석탄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석탄의 채굴·생산·가공 관련 사업, 석탄의 운송과 유통을 위한 철도와 항만 등 인프라 건설 및 운영 관련 사업, 석탄액화 또는 가스화 설비 등 석탄의 소비와 관련된 설비의 제조, 건설 및 운영 관련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

어떤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 기준이 부재한 채 탈석탄 투자 대상을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국한하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진행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명확히 석탄 사업이 아닌 경우 투자 제한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 기존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역시 제한되지 않을 수 있다. 투자 제한의 범위가 PF 대출 및 특수목적법인의 사채에만 국한돼 있는 한계도 이와 관련이 있다. 투자 제한의 대상이 되는 ‘석탄 기업’ 기준이 설정돼야 해당 기업에 대한 주식, 사채 및 대출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

탈석탄 투자 기준은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뿐 아니라 금융의 수요자인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 전환을 유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때문에 기존에 석탄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들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석탄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 제한이 필요하다. 현재 매출/발전량 기준으로 석탄 기업을 정의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기관은 SC제일은행, 삼성화재, 미래에셋증권 세 곳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탄소중립 목표와 포트폴리오 관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기관은 100개 중 16개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경우 사업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크지 않으므로 투자 자산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기관만을 산정했다. 하나금융그룹의 경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으므로 제외했다. 이렇게 산정된 16개 기관 중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제시한 곳은 스탠다드차타드그룹·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 산하 금융기관 11개였고, 우리금융그룹의 경우 별도의 자산포트폴리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 국가 차원에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공식적으로 수립한 만큼 금융기관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기후변화 위험 관리 계획이 현저히 부족하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이 장기 목표인 만큼 2030년 등 중·단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자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준비하고 구체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적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 공적 금융기관의 기후변화 정책은 오히려 민간 영역보다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0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면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알린 것을 사실이지만, 이후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지속해서 해외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수조 원의 수출신용을 제공하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받았다. 2021년 4월 정부가 해외 석탄금융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은 종결됐으나 주요 정책 금융기관 및 연기금의 탈석탄 범위 역시 '신규 석탄발전'에 국한돼 있다. 아울러 자산 포트폴리오의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거나 구체적인 탄소 감축 계획을 수립한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900조 원이 넘는 기금 적립금을 가지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연금공단도 2021년 5월 탈석탄 선언을 했을 뿐 구체적인 탈석탄 기준을 수립하지 않고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4 글로벌 금융시장 기후변화 대응 동향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투자에 종합적인 탈석탄 기준을 적용하며 적극적으로 기후변화 위험 관리에 나선지 오래다. 주요 글로벌 은행, 자산운용사, 보험사, 연기금은 석탄과 관련된 신규 사업 투자 중단뿐 아니라 석탄 관련 매출/발전 비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포트폴리오에서 배제했거나 단계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 보험그룹인 악사(AXA)가 대표적인 사례다. 악사는 전체 매출 중 석탄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30% 이상인 기업을 '석탄 기업'으로 규정하고 이 기업들에게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또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안에서 석탄 투자를 모두 회수하고 2040년까지는 이외 국가들에서도 석탄 투자를 회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와 유사한 투자 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 네덜란드 공적연금운용공사(APG)와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은 실제로 2021년 석탄발전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주식을 전량 매각한 바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탈석탄은 이미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았고, 2021년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 제한인 '탈화석연료' 방침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유럽 주요국, 미국, 캐나다 등 34개 국가와 5개 금융기구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금융을 중단한다는 선언문에 합의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반면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우리나라 공적 금융기관의 금융 제공은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

1 <https://ukcop26.org/statement-on-international-public-support-for-the-clean-energy-transition/>

이다.² 석탄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는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대한 민간 금융의 투자 규모도 매우 큰 수준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석탄을 넘어 석유·천연가스에 대한 투자 제한에 나선 것은 화석연료 산업 전체에 기후변화 위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기관들도 걸음마 수준의 탈석탄 기준을 신속히 강화하고, 화석연료 전체에 대한 투자 감축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기후변화 위험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5 부문별 데이터 및 분석

분석 대상 100개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정책을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손해보험사, 생명보험사, 정책금융기관·연기금·공제회 6개 부문별로 나누어 평가한 세부 내역 및 평가를 정리했다.

1) 은행 (13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SC 제일은행	O	PF, 채권	O	(O)	O	O
신한은행	O	PF, 채권	X	X	O	2030년 38.6% 감축
KB국민은행	O	PF, 채권	X	X	O	2030년 33.3% 감축
우리은행	O	PF, 채권	X	X	O	X
하나은행	O	PF, 채권	X	X	X	X
광주은행	O	PF, 채권	X	X	X	X
제주은행	O	PF, 채권	X	X	X	X
BNK부산은행	O	PF, 채권	X	X	X	X
BNK경남은행	O	PF, 채권	X	X	X	X
NH농협은행	O	PF, 채권	X	X	X	X
전북은행	O	PF, 채권	X	X	X	X
DGB대구은행	O	PF, 채권	X	X	X	X
수협은행	X	X	X	X	X	X

조사 대상 6개 부문 가운데 은행이 탈석탄 선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주요 은행 가운데 탈석탄 선언을 하지 않은 기관은 수협은행이 유일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석탄 내용이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PF와 채권 투자 중단에 그친 한계가 나타났다.

탈석탄 선언을 한 13개 은행 가운데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은 모회사인 스탠다드차타드(Standard Chartered) 금융그룹의 기후변화 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힌 SC제

2 <https://www.energy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39>

일은행이 유일했다. 그러나 SC제일은행의 경우도 “2030년까지 석탄 관련 매출 비중 5% 미만인 고객에 한 해 금융을 제공”한다고 밝혀 즉각적으로 적용되는 배제 기준이 모호한 한계가 있다. 또 자산 포트폴리오와 관련해 발전, 철강, 석유, 가스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만을 세운 점은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국내 5대 금융지주 가운데 NH를 제외한 신한, KB, 우리, 하나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으나, 구체적인 2030년 자산 포트폴리오 감축목표를 세운 것은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뿐이었다. 신한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8.6%, KB금융그룹은 동년 대비 33.3%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 자산운용사 (27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신한자산운용	O	PF, 채권	X	X	O	2030년 38.6% 감축
KB자산운용	O	PF, 채권	X	X	O	2030년 33.3% 감축
우리자산운용	O	PF, 채권	X	X	O	X
우리PE자산운용	O	PF, 채권	X	X	O	X
우리글로벌자산운용	O	PF, 채권	X	X	O	X
BNK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브이아이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삼성액티브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NH-Amundi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삼성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교보약사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한화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DGB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하나UBS자산운용	O	(PF, 채권)	X	X	X	X
흥국자산운용	X	X	X	X	X	X
IBK자산운용	X	X	X	X	X	X
이지스자산운용	X	X	X	X	X	X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X	X	X	X	X	X
이스트스프링자산운용	X	X	X	X	X	X
키움투자자산운용	X	X	X	X	X	X
미래에셋자산운용	X	X	X	X	X	X
베어링자산운용	X	X	X	X	X	X
하이자산운용	X	X	X	X	X	X
트러스트자산운용	X	X	X	X	X	X
KT자산운용	X	X	X	X	X	X

자산운용사는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산을 위탁받고 이를 투자해 운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투자 대상과 규모에 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때문에 자산운용사의 기후변화 위험 관리 기준은 특히 중요하다. 조사 대상 27개 기관 가운데 16개가 '탈석탄'을 선언했으나 그 내용은 대부분 신규 석탄발전 사업 투자 중단에 그쳐 뚜렷한 한계가 확인됐다. 종합적인 탈석탄 기준을 수립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하나UBS자산운용은 하나금융그룹의 탈석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진행되는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 투자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거부한 바 있어, 탈석탄 정책의 실효성 있는 시행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자산운용사 가운데는 NH-Amundi자산운용, 하나UBS자산운용, 교보약사자산운용과 같이 글로벌 금융기관과 합작으로 설립된 기관들이 있다. 특히 교보약사자산운용은 교보생명보험(50%)과 AXA Investment Managers(50%) 간의 합작회사로 석탄 관련 매출 비중 30% 이상 기업에 대한 투자 중단과 중장기적 포트폴리오 배제를 포함한 AXA Investment Managers기후 리스크 정책(Climature Risks Policy)을 적용해야 하지만³ 현재까지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3) 증권사 (21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미래에셋증권	O	PF, 채권	(O)	(O)	X	X
신한금융투자	O	PF, 채권	X	X	O	2030년 38.6% 감축
KB증권	O	PF, 채권	X	X	O	2030년 33.3% 감축
삼성증권	O	PF, 채권	X	X	X	X
교보증권	O	PF, 채권	X	X	X	X
SK증권	O	PF, 채권	X	X	X	X
하이투자증권	O	PF, 채권	X	X	X	X
NH투자증권	O	PF, 채권	X	X	X	X
한화투자증권	O	PF, 채권	X	X	X	X
BNK투자증권	O	PF, 채권	X	X	X	X
하나금융투자	O	PF, 채권	X	X	X	X
한국투자증권	O	X	X	X	X	X
키움증권	X	X	X	X	X	X
대신증권	X	X	X	X	X	X
유안타증권	X	X	X	X	X	X
현대차증권	X	X	X	X	X	X
신영증권	X	X	X	X	X	X
유진투자증권	X	X	X	X	X	X
DB금융투자	X	X	X	X	X	X
이베스트투자증권	X	X	X	X	X	X
메리츠증권	X	X	X	X	X	X

3 https://www.axa-im.com/sites/corporate/files/2021-08/20210226_AXA_IM_Climate_Risks_Policy_.pdf

증권사는 주식 및 채권의 발행이나 PF 주관 등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을 주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므로, 증권사의 기후변화 위험 대응 정책 역시 금융시장의 기후변화 위험 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조사대상 21개 기관 가운데 12개 기관이 탈석탄 선언을 했으나 대부분 신규 석탄 관련 중단에 그쳤다는 한계는 동일하다.

미래에셋증권은 석탄의 경우 전체 매출 대비 매출 의존도가 발전은 30% 이상, 채굴은 25% 이상이라는 기준으로 '유의영역'을 설정하고 나아가 석유·천연가스 사업에 대해서도 기준을 설정해 거래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혀 한 걸음 나아간 탈석탄 정책을 수립했지만,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2020년 8월 증권사 최초로 추가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이후로 구체적인 탈석탄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은 2021년 6월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인 주식회사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여 비판받은 바 있다.

4) 생명보험사 (14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신한라이프	O	PF, 채권	X	X	O	2030년 38.6% 감축
KB생명보험	O	PF, 채권	X	X	O	2030년 33.3% 감축
푸르덴셜생명	O	PF, 채권	X	X	O	2030년 33.3% 감축
하나생명	O	PF, 채권	X	X	X	X
DGB생명	O	PF, 채권	X	X	X	X
교보생명	O	PF, 채권	X	X	X	X
NH농협생명	O	PF, 채권	X	X	X	X
삼성생명	O	PF, 채권	X	X	X	X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O	PF, 채권	X	X	X	X
한화생명	O	PF, 채권	X	X	X	X
동양생명보험	X	X	X	X	X	X
흥국생명	X	X	X	X	X	X
미래에셋생명보험	X	X	X	X	X	X
KDB생명보험	X	X	X	X	X	X

보험사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로서 주요 투자자이므로 보험사의 기후변화 위험 정책은 금융시장

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아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의 증가는 생명 및 재산 상의 손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가운데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 위험이 특히 크다. 글로벌 금융기관 가운데 AIA, AXA, Allianz, Aviva, Swiss Re 등 보험사들이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이 유도 여기에 있다.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의 경우 14개 가운데 10개가 탈석탄 선언을 했다. 하지만 모두 신규 석탄발전 투자 중단 정책만 수립해, 탈석탄 선언이 실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특히 글로벌 보험사들의 동향에 맞추어 종합적인 탈석탄 기준 수립 및 자산 포트폴리오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

5) 손해보험사 (11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건설보험 중단	운영보험 중단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삼성화재	O	O	O	PF, 채권	(O)	매출 기준 ≥ 30%	X	X
KB손해보험	O	O	O	PF, 채권	X	X	O	2030년 33.3% 감축
한화손해보험	O	O	O	PF, 채권	X	X	X	X
하나손해보험	O	O	O	PF, 채권	X	X	X	X
DB손해보험	O	O	O	PF, 채권	X	X	X	X
흥국화재	O	O	O	PF, 채권	X	X	X	X
현대해상화재보험	O	O	O	PF, 채권	X	X	X	X
롯데손해보험	O	O	O	X	X	X	X	X
NH농협손해보험	O	O	X	PF, 채권	X	X	X	X
캐롯손해보험	O	X	X	PF, 채권	X	X	X	X
메리츠화재	X	X	X	X	X	X	X	X

손해보험사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로서 주요 투자자임과 동시에 석탄 사업에 관해 보험 인수를 통한 금융을 제공하는 특성이 있다. 탈석탄을 위한 네트워크 캠페인 ‘석탄을넘어서’는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을 상대로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해 건설 및 운영 보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건설보험 중단 및 운영보험 중단 여부를 추가로 확인했다. 특히 아직 삼척과 강릉에서 4기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보험 제공 여부는 현재 건설 중인 사업과 관련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 대상인 11개 손해보험사 중 탈석탄에 대해 아무런 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보험사는 메리츠화재가 유일

했다. 메리츠화재를 제외한 10개 보험사는 탈석탄 선언을 했고, 이들 중 8개 보험사는 신규 석탄발전소에 건설보험과 운영보험을 모두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자에 관해서는 삼성화재가 유일하게 석탄 발전 및 채굴과 관련한 매출 비중이 30%를 넘는 회사를 투자에서 배제하고 있어 손해보험사 가운데서 가장 앞서 간 정책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석탄 사업의 범위를 발전과 광산으로만 제한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삼성화재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서만 투자를 제한했다는 한계가 동일하게 드러났다. 롯데손해보험은 신규 보험 인수 중단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혔으나 투자 제한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6) 정책금융기관·연기금·공제회 (14개)

기관명	탈석탄 선언	신규석탄발전 투자 중단	석탄관련산업 투자 중단	석탄기업 배제 기준	포트폴리오 2050 넷제로	포트폴리오 감축 계획
한국교직원공제회	O	PF, 채권	X	X	X	X
대한지방행정공제회	O	PF, 채권	X	X	X	X
공무원연금공단	O	PF, 채권	X	X	X	X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O	PF, 채권	X	X	X	X
한국무역보험공사	O	보증	X	X	X	X
중소기업은행	O	PF, 채권	X	X	X	X
한국지방재정공제회	O	PF, 채권	X	X	X	X
한국수출입은행	O	PF, 채권	X	X	X	X
한국산업은행	(O)	(PF, 채권)	X	X	X	X
국민연금공단	O	PF	X	X	X	X
신용보증기금	X	X	X	X	X	X
과학기술인공제회	X	X	X	X	X	X
새마을금고중앙회	X	X	X	X	X	X
기술보증기금	X	X	X	X	X	X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공적 금융 탈석탄의 중요성은 특히 크다.⁴ 2009 ~ 2020년 동안 이뤄진 석탄 금융 총액 60조 원 가운데 37%가 공적 금융으로 지원됐을 만큼 석탄 금융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이 담당할 역할이 컸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14개 기관 가운데 10개 기관은 탈석탄 선언을 했지만, 그 범위가 신규 석탄발전 사업 관련 투자 제한에 한정한다는 한계가 여전히 뚜렷하다.

특히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금융 제공을 주도했던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2021년 4월 정부가

4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그린피스, 국회의원 양이원영

해외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하면서 향후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석탄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 국내 투자 기능도 가진 한국산업은행은 정부의 해외 석탄금융 중단과 별개로 탈석탄 투자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이다. 국민연금은 2021년 5월 신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PF 투자를 제한한다는 방침만 수립했다. 석탄 채굴과 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 제한 전략 관련해서는 개발하겠다고 밝힌 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압도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국민연금공단이 수립하는 탈석탄 및 기후변화 위험 관리 정책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의 전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문의

윤세종 기후솔루션 변호사 010 9253 6181 sejong.youn@fourclimate.org

한수연 기후솔루션 연구원 010 9761 9731 sooyoun.han@fourclimate.org